

편집 및 발행인 : 조정희 원장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 감수 : 이연경 · 전화번호 : 051-797-4913 · E-mail : kdong@kmi.re.kr

Contents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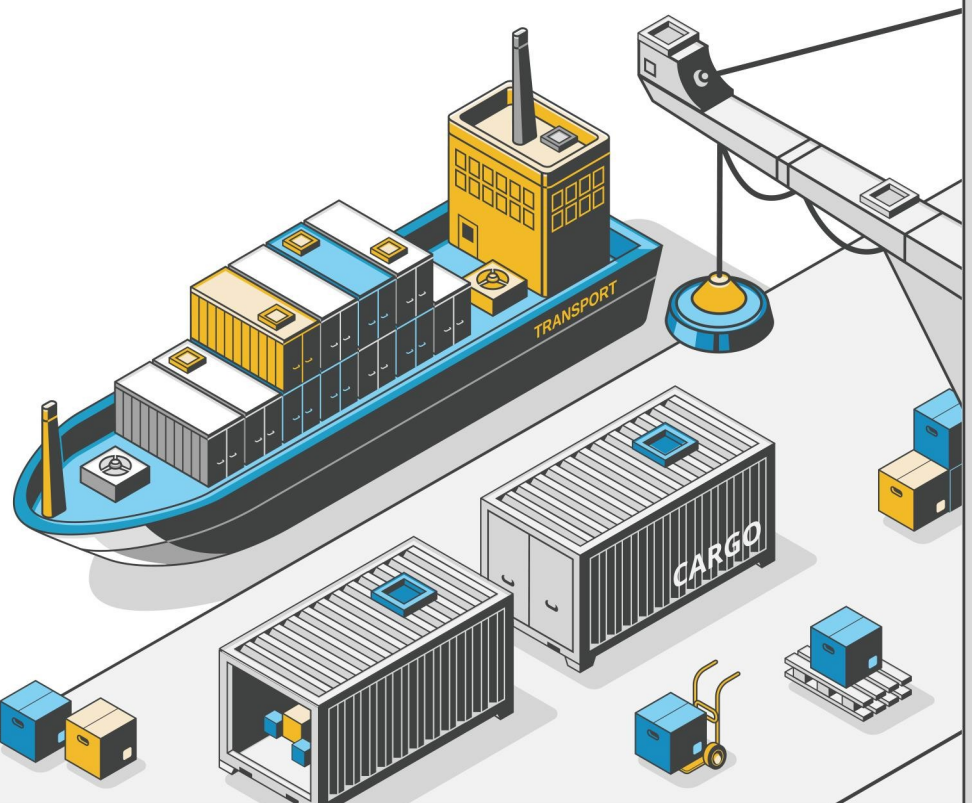
- 인도-파키스탄 갈등으로 화물운송 지연
- 미얀마 지진 이후 내륙 물류비 급등세...지역 간 물류 불균형 심화 우려

▶ 공지사항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美 · 中 관세 대폭 이하로 아시아~美 현물 운임 급등 예고



인도-파키스탄 갈등으로 화물운송 지연

- 금년 5월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 지정학적 긴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 펄와마 이후 가장 심각한 충돌로 평가되는 카슈미르 파할감 테러(사망자 인도 자국민 25명, 네팔인 1명) 이후, 양국은 상호 무역과 해운을 전면 차단하는 보복성 조치를 주고받으며 사실상 국경 간 경제활동을 봉쇄함
 - 인도가 파키스탄산 물품 수입 및 파키스탄 선박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우편·소포 교환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이에 맞서 파키스탄도 인도 국적 선박의 자국 항만 기항을 금지하고, 자국 선박의 인도 항만 이용도 차단하는 보복 조치를 함

인도-파키스탄 갈등 심화에 따른 물류·경제 영향 통합 요약

구분	내용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할감 테러(사망 26명) 이후 인도, 파키스탄 화물 선박 자국 항만 통과 전면 금지 • 파키스탄도 인도 선박 기항 금지 및 보복 조치
인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산 수입 전면 금지 • 파키스탄 선박 인도 항만 입항 금지 • 파키스탄 화물 선박 인도 항만 경유(RoB) 금지 • 우편·소포 교환 중단
파키스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국적 선박 파키스탄 항만 기항 금지 • 자국 선박의 인도 항만 이용 금지
파키스탄 항만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ICT, SAPT, KGT 등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규모 적체 발생 • 인도 당국, 카라치발 선박 최소 4척 입항 거부(콜롬보·제벨알리 우회)
글로벌 해운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C: QICT 입항 예정 화물 콜롬보로 우회 • CMA CGM: 카라치 제외, 미국·중남미·호주행 화물에 최대 800달러 긴급 운영 할증료(EORS) 부과
공급망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파키스탄 육로·해상·항공 무역 경로 전면 차단 • 기업은 UAE, 싱가포르, 중앙아시아 등 제3국 경유 무역으로 우회 중 • 물류비 상승, 운송 지연, 보험료 인상, 병목현상 심화

자료: 저자 작성

- 인도의 파키스탄 화물 선박 통과 금지 조치로 파키스탄 항만에 ‘대규모 적체’ 발생
 - 인도 당국은 카라치에서 출항한 최소 4척의 화물선 입항을 거부했으며, 이들 선박은 스리랑카 콜롬보 및 UAE 제벨알리로 우회함
 - 해운사가 파키스탄 항만 기항을 중단하면서, 파키스탄의 주요 컨테이너 항만인 QICT(Qasim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APT(South Asia Pakistan Terminal), KGT(Karachi Gateway Terminal)가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음

- 글로벌 해운사는 이번 사태로 파키스탄 화물에 대한 긴급 운항 할증료 (Emergency Operating Surcharge) 부과 및 운송로를 변경하기 시작함
 - 스위스 해운사 MSC는 5월 6일 MSC Positano(MSC Positano V-JP526R) 호를 통해 QICT에 입항 예정이던 모든 화물을 콜롬보로 우회 조치함
 - 프랑스 해운사 CMA CGM도 운항 효율성 조정을 이유로 카라치를 최소 4개 서비스에서 제외했으며, 미국·중남미·호주행 화물에 대해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최대 800달러의 긴급 운항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양국 갈등으로 육로, 해상, 항공 등 전통적인 무역 경로가 전면 차단되며 양국 간 물류 흐름이 사실상 마비 상태
 - Darshan Ghodawat AVA Global Logistics 대표는 “인도 물류산업은 인도-파키스탄 사태로 인한 국경 간 공급망 차질이라는 초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육로, 항공, 해상 등 전통적 무역 경로가 전면 차단됐다”고 밝힘
 - 직항 경로가 차단되면서,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중앙아시아 경로를 통한 제3국 경유 무역을 택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우회는 운송 시간과 물류비를 증가시키고, 보험료 인상과 물류 병목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미얀마 지진 이후 내륙 물류비 급등세... 지역 간 물류 불균형 심화 우려

- ’25년 3월 사가잉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은 내륙 물류 운임 급등세를 유발함**
 - 최대 수출입 거점인 양곤항은 지진 영향권에서 벗어났으나 내륙 물류 핵심 거점인 만달레이 항만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큰 피해를 봄
 - 미얀마 정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재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 집중 지역은 여전히 운송로가 단절되고 경제활동 여건이 정상화되지 못한 실정임
 - 특히 북부 지역의 물류 인프라 재건이 지연되면서 우회 경로 운행으로 인한 운임이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운임 상승은 피해 중심 지역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운임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가잉주,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5년 4월, 양곤~몽유와 구간의 운임은 톤당 250,000 MMK로 전년 동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양곤~미야와디 구간 또한 톤당 60,000 MMK로 상승했으며, 타웅지~양곤 루트 운임은 131,795 MMK로 상승추세를 보임
 - 반면 양곤~타웅지 운임은 톤당 60,000 MMK로 역방향 노선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노선 방향, 즉 종착지에 따라 운송 수요 및 활용 가능 물류 인프라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미얀마 강진 이후 주요 운송 구간별 운임 추이

출발지	도착지	2024년 4월 기준 톤당 운송비 (MMK)	2025년 1월 기준 톤당 운송비 (MMK)	2025년 4월 기준 톤당 운송비 (MMK)
양곤	만달레이	40,000	40,500	55,000
만달레이	양곤	80,000	88,000	115,000
양곤	타웅지	53,000	55,000	60,000
타웅지	양곤	105,000	102,000	131,795
양곤	몽유와	100,000	150,000	250,000
양곤	미와야디	40,000	44,000	60,000
양곤	파테인	36,000	38,000	52,000
만달레이	미치나	1,000,000	1,200,000	1,400,000
만달레이	뮤즈	N/A	N/A	500,000
미와야디	양곤	N/A	N/A	1,200,000

자료: <https://cambodiainvestmentreview.com> (검색일: 2025.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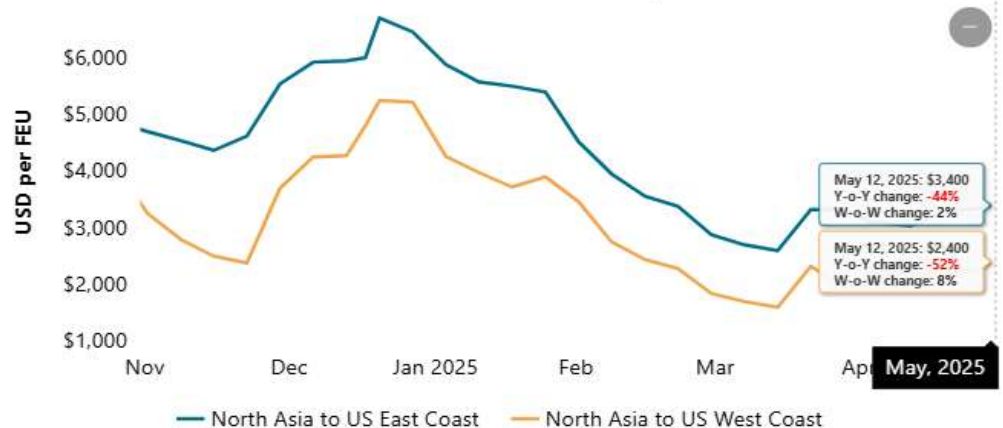
- 미얀마 정부는 지역 간 복원력 차이를 고려한 공급망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번 지진으로 인한 운임 상승률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운임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미얀마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운송망 확보 및 수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또한 지역별 피해 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재건 사업,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우리 기업 또한 미얀마를 비롯한 해외 국가 진출 시 다양한 운송 루트 확보, 복수 거점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별 복원력 평가 등을 통해 공급망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진출국 및 거점 구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美·中 관세 대폭 인하로 아시아~美 현물 운임 급등 예고

- 5월 12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도 미국에 부과한 보복관세 120%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함
 - 지난 월요일 미·중 양국은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통해 미국이 4월 2일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기로 한 추가 관세 125% 중 24%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91%는 취소하기로 해 중국에 20% 추가 관세와 보편 관세 10% 등 30%만 적용할 예정임
 - 이에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동일하게 115% 인하여 기존 1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함
 - 이는 협상 직전 9일, 美 행정부의 對중 관세율은 80% 수준이 적정하다는 발언과 50%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주요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의 인하임
- 관세 인하를 통해 중국발 미국 해상물동량이 급증해 향후 몇 주간 현물 운임 상승, 할증료 부과, 선박 및 장비 부족 사태 발생할 것으로 전망임
 - 美 물류업체는 90일간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주문을 재개해 재고를 선제적으로 비축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4~6주 동안 중국발 컨테이너화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지난 4월 對중 관세 인상 이후 태평양 항로의 공선 증가 및 서비스 철수로 인해 현재 선박의 상당수가 극동, 유럽 등 다른 항로에 배치되어 있어 재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태평양 항로의 선박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운송업체들은 많은 공컨을 동남아, 특히 중국 대신 베트남에 재배치하거나 아예 회수하지 않고 있어 특정 지역에서는 공컨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아시아~미국 동안 및 서안 현물 운임 추세

Asia-US spot rates poised to jump after US-China trade deal
Container rate from North Asia to US East and West coasts in USD per FEU



자료: Platts, S&P Global, JOC (감색일: 2025.05.13.)

- 관세 유예로 인한 美 소매업체의 주문 재개는 물동량 증가로 이어져 해운 및 내륙운송업체에는 수익 증대의 기회나 수입업체에는 물류비 부담으로 작용함
 - 글로벌 물류 플랫폼인 Xeneta는 올해 1월 1일 대비 중국~美 서안 및 동안의 평균 현물 운임이 56%, 48% 하락했다고 발표했으며, 향후 물동량 급증과 선박 부족 현상으로 중국~美 서안 운임이 단기적으로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머스크 북미지사는 현재 美 서안 기준 \$2,400 수준의 현물 운임이 2~3배 이상 급등할 수 있으며, 또한 예년보다 한 달 이른 6월 1일부터 중국 및 홍콩에서 북미로 향하는 40피트 컨테이너에 성수기 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를 조기 적용할 것으로 발표함
 -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많은 기업이 보류했던 주문을 재개하면서 해상 운임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물동량 증가는 해운, 트럭 운송 및 철도기업에는 수익 증대의 기회일 수 있으나 수입업체에는 비용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관세 유예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과 해운 성수기는 물론 트럼프 경기부양책 본격화를 고려하면 향후 선박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물류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함
 - 90일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화주의 밀어내기 수출이 3분기 해운 성수기와 겹쳐 단기적으로는 컨테이너 선박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및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미국 내 소비와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추가적인 물동량 증가에 따른 기회와 함께, 선박 부족 및 운임 상승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수입 확대는 우리 해운·물류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선박 확보 및 운임 협상을 위해 선사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므로 선제적 대응과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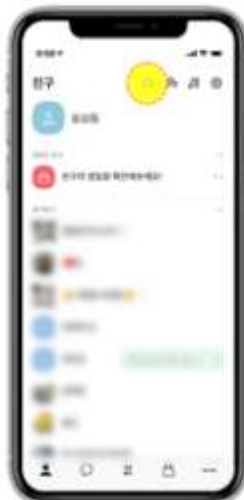
참고자료: <https://www.joc.com>, <https://www.cnbc.com> (검색일: 2025.05.14.)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